

<2026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청년)> 선정 심의평

<2026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청년)> 선정 심의는 추천위원 추천과 공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총 27명의 후보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후보군은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청년 작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추천위원들의 전문 분야와 관심 영역이 고르게 반영되어 한국 동시대 청년미술의 폭넓은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심의는 창작성과(30점), 국내외 활동(30점), 발전/지속 가능성(40점)을 기본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작가가 인천이라는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그 작업이 인천아트플랫폼의 전시 맥락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나아가 동시대적 의제를 담아내면서도 인천의 지역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지금까지의 작품 활동에서 보여준 성취뿐 아니라 앞으로의 실험성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향후 미술계에 미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심의위원 5인(심의위원장: 최태만)은 상호 협의한 기준에 따라 27명의 후보 작가에 대한 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뒤 1차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8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다. 이중 최다 득표한 2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황문정 작가를 <2026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청년)>로 선정하였다.

최종 후보에 오른 두 작가는 모두 독창성과 예술적 성취가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역량 측면에서는 다른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의위원들은 황문정 작가가 꾸준히 구축해 온 작업 세계의 완성도와 분명한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두 후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황문정 작가의 작업 세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최종 선정에 이르렀다.

황문정은 도시를 기반으로 매체와 재료에 대한 실험,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이어온 작가이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시립미술관, 송은 등 주요 기관의 기획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스트휴먼, 환경, 도시와 같은 동시대 미술의 핵심 의제를 콘크리트, 수로관, 유리관, 조명 등 물성을 지닌 재료를 활용한 설치 작업으로 구현하며 주목 받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황문정 작가가 이러한 도시와 물질성에 대한 조형적 탐구를 통해 인천이라는 도시를 출발점으로 동시대 사회·정치·문화의 다양한 층위를 입체적으로 사유하며, 인천의 지역성과 동시대적 담론을 설득력 있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작업 세계를 앞으로 더욱 심화·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그의 작업이 한층 견고하게 발전하고, 지역성과 현대미술의 담론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새로운 전시를 선보임으로써 인천 문화예술계에 의미 있는 자극과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정이 한

작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의 지역성이 동시대 미술의 보편적 담론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선정 심의 과정에서 추천과 공모를 통해 제안된 후보 작가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과 함께, 동시대 청년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천위원 추천 작가들은 작업의 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나, 공모를 통해서도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작가들이 다수 지원하여 제도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 작가들의 예술적 역량이 한층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전시 제도가 이러한 인천의 예술적 역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심의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최태만,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심의위원장

권혁규, 전시기획자,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유원준,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트랜스아트과/미학미술사학과 교수

윤혜원,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이수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